

데이브 매튜슨 박사, 그분은 어디로 오시나요 ?

세션 2,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파루시아의 지연

© 2024 데이브 매튜슨 (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Dr. David Mathewson이 '그분은 어디로 오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션 2,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파루시아의 지연.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복음서, 특히

파루시아 지연 문제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에 예수께서 자신의 생애 중에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 적어도 일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 중 한 세트는 세 개의 공관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의 성인 사역 초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거나 때가 가까웠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종말이 그의 생애 내에 곧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대했던 마지막 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그것은 실제로 현실이었지만 최종 형태에 앞서 개시된 초기 형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세상의 종말이나 재림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된 형태의 왕국을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재림 때 일어날 미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앞서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세 복음서 모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존재한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과 미래에 있을 것처럼 보이는 다른 진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를 설명하는 방법은 둘 다 구약에서 약속된 단일 종말 왕국이 이제 두 단계로 도래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최초의 형태이며, 그 다음에는 온 땅 위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두 번째 추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언급된 진술들과 그 왕국이 이미 존재했거나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여러 진술들은 실패한 예언이 아니라 그 대신에 그 왕국이 구약의 마지막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남자와 여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와 통치에 들어가 지금 이 순간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 보고 싶은 예수의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멈추고 싶은 다음 것은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선별적으로 지침으로 지적된 몇 가지 주요 텍스트를 다룰 것입니다. 예수께서 종말을 예언하셨는데 틀렸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그 중 하나가 마태복음 16장과 28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28절을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태복음 16장 28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예수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다시 읽어 27장을 읽으리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러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곧 일어날 것인지, 그와 비슷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었으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것을 27절에 대한 언급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께서는 그의 추종자 중 일부가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목격하고, 역사를 마무리하고, 왕국을 완성하고,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일부 사람들은 예수께서 종말을 예언하셨지만 매우 틀렸다고 다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애와 일부 제자들의 생애에 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의 예언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문 강의에서 보았듯이 이 견해는 예수가 일종의 묵시론적 설교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수많은 예언 설교자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틀렸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다시 한 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 견해는 분명히 제가 신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러 오시는데, 예수께서 종말을 예언하셨다가 실수와 실수를 범하신 것으로 보는 것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도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그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견해가 적어도

다섯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실수했고 예수도 틀렸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들 중 마지막은 내가 고수하고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 모두가 좋은 논증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잘못된 묵시론 설교자로 보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의 첫 번째 견해는 이것이 예수의 부활과 승영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의 왕국에 오는 것은 그의 부활과 그의 승영을 의미할 것이다. 천국.

사실, 사도행전 2장, 심지어 에베소서 1장 끝부분과 같은 신약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특히 시편 2장과 110편을 언급하면서 신약 저자들은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메시아 통치로 들어가는 입구로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문구처럼,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우편에서 다윗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에베소서 1장은 그 일이 그분의 부활과 승영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분은 메시아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히브리서 1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말로 여러분 중 일부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서 있는 대부분의 추종자들은 특히 사도행전 1장을 읽을 때 예수의 부활과 승영에 대해 눈에 보이거나 구두로 알고 있음을 알고 목격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영을 그분의 왕국에 오시는 것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의 승영과 아버지 우편의 메시아 통치로의 입구인 시편 110편과의 연관성이 아마도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오직 몇몇 사람들만 거기 서 있다는 문구로 인해 이 사건이 그분의 부활과 승영을 가리킨다고 결론짓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내가 다시 생각하는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를 오해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 인자가 그의 왕국에 온다는 이 언급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임하는 성령과 복음의 확산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당화하고 설명하기 위해 2장에서 요엘을 인용한 것이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요엘 2장을 인용합니다. 요엘 2장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통치를 세우실 때 메시아가 만물을 통치하실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다가오는 왕국을 예고한 예언적 본문의 성취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교회에 임함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것은 주의 임할 날 곧 장차 올 나라를 고대한 것이 참으로 이루어졌음이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첫 번째 견해를 취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 중 일부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이것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 주후 70년에 예수가 오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전체 지연 문제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특정 텍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여러 텍스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적어도 내가 읽었을 때 이 맥락에서 이것이 명확한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특히 27절 이후에 권력을 잡으시는 것이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은 설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이들 중 일부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숫자 2와 3, 심지어 숫자 2와 4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임하심,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설립, 교회에서의 복음의 전파 등을 가리킨다 .

그것은 인자가 그의 왕국에 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전부입니다. 마지막 견해이자 제가 선호하고 본문을 잘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신 것이 28절입니다. 그의 왕국에서 인자가 그의 왕국에 오는 것은 아마도 변형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세 복음서 모두 이 정확한 진술을 담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바로 다음 부분과 바로 다음 구절은 예수님의 변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산에 올라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형되고 변형됩니다. 따라서 문맥상 이 견해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바로 다음 사건은 변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마도 27절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신 후에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라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나 인자의 오는 것을 목격할 자들이 있느니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변형의 형태로 실제로 그것을 엿볼 것입니다. 일종의 미리보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과 세 복음서 모두에서 이 말이 나온 바로 다음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변형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언어로 꿰뚫어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 제 생각에는 그 중 많은 부분이 다니엘 7장에 달려 있습니다. 인자가 자신의 영광 중에 오고, 자신의 왕국에 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 앞에서 변형되고 변형되는 환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일부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16장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있던 몇몇 사람들뿐이었고, 오직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변형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마태복음 16장 28절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평행선이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조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더 가까운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을 언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자신의 예언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확실히 다른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서기 70년 사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참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나는 문맥상으로 변형을 선호하고 다니엘서 7장 및 구약의 다른 본문과의 관계도 선호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최후의 종말론적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스냅샷임이 분명해 보이며, 소수만이 변형의 형태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싶은 다음 구절은 마태복음의 독특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종말을 예언하셨다가 실수하셨다고 암시하는 것으로 종종 받아들여지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그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선교 사업을 맡기시는 더 넓은 맥락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제 다시,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을 마치기도 전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셨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애나 그의 생애에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거의 여기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착각하신 걸까요? 예수가 틀렸는가? 실제로 그것은 Albert Schweitzer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소개 영상에서 예수를 묵시적인 설교자라고 결론지은 유명한 신학자인 그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종말을 설교했지만 착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생애 내에 오실 것이라고 예측하신 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대한 슈바이처와 다른 사람들의 견해였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것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기 전에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주된 임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지상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신다면,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다 둘러보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부활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도를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지상 명령에 반영된 대로 그들의 사명은 이방인과 모든 나라를 포함하도록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인자가 오기

전의 언급인 23절 맨 끝 부분에 인자의 오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 다소 이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글을 그렇게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또 다른 가능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다른 몇 구절에서, 이것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서기 70년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T. Wright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가능하며 예수께서 자신의 오심과 재림을 예언하셨다가 틀렸다는 견해를 취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낫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 본문에 더 잘 맞는 견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이것은 파루시아(parousia) ,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그런 의미에서 슈바이처의 말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과 재림을 예언하고 계시지만, 그를 틀렸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을 보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 그 중 하나는 처음 15절에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처음 15절은 매우 단기적인 선교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특히 5절부터 시작하여 15절까지 읽을 때, 이것은 더 좁은 초점과 더 단기적인 사명을 반영합니다. 16절에 이르고 장의 나머지 부분을 거치면 관점이 넓어지고 더 이상 좁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훨씬 더 넓고 장기적인 사명으로 보입니다. 이제 법원 앞에 그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앞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정관과 왕들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게 되리라

당신은 박해를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처음 15구절보다 관점에서 훨씬 더 가지가 뻗어나가거나 넓어진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림을

연게 됩니다. 즉, 17절부터 장 끝까지, 또는 16절부터 장 끝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사명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위가 훨씬 더 넓고 처음 15절에 설명된 것보다 더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언제 돌아올지, 얼마나 빨리 돌아올지 알려주지 않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지속적인 사명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향한 사명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한 지속적인 사명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거의 명령입니다. 이는 사람의 아들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 사명에 대한 긴박성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광범위한 광범위한 선교에 대한 그림은 단지 선교가 처음 15절의 좁은 초점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확장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2,000년을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의 생애 내에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재림을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단지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사명과 함께 제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끝나지 않은 사명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를 계속하라는 격려이자 계속해야 할 긴급성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대한 예측이나 종말이 얼마나 가까웠는가보다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는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인 마태복음 28:18-20을 다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이 더 넓은 사명에서 그것을 볼 수 있지만, 인자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직 진행 중이고 성취되지 않은 사명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이미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의 전도와 사명에 긴급성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을 근거로 예수께서 틀렸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세상 종말을 예측한 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태복음 10-23장에서 재림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한동안 연장하실 것으로 보시는 더 넓은 사명의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2,00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즉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착각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는 단지 그들에게 사명의 긴급성과 현재와 미래의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항상 참여하고 참여해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의 미완성 성격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즉 더 큰 부분에는 파루시아의 지연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세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의 가장 광범위한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종종 예수의 종말론적 담론이나 감람산 담론으로 분류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가장 광범위한 버전인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인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설교 또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가장 완전한 설명이고 다른 공관 복음서에는 없는 몇 가지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예수님의 첫 구절이나 말씀은 마태복음 29장 24절과 34절에 있습니다. 24절과 25절 전체도 각각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29절에는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별에서 떨어지리라 하늘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후자의 말은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영광이 있을 것이며 그의 왕국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일이 그 날의 환난 직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날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구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34절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 즉 동시대 사람들, 추종자들, 제자들, 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이 바로 이 세대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살아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이 세대 곧 듣고 있는 너희 살아 있는 자들아 이 세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수께서는 듣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두 구절을 통해 이 모든 일을 예언하셨으며 재림을 언급하셨다고 다시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셨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24장과 25장 전체, 특히 24장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은 예수의 제자들이 헤롯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다소 인상적인 건축물인 성전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그 건물과 구조에 놀랐고, 그러자 예수께서는 즉시 그 건물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4절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그 건물들 곧 성전을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언제 이런 일이 있사오리이까? 즉,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당신이 오실 징조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질문은 두 가지이며 아마도 두 가지를 연관시켰을 것입니다. 첫째, 성전은 언제 파괴될 것인가? 예수님, 당신은 방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시대의 끝, 곧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그의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미래의 마지막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시대의 끝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한 가지에만 대답하시고 다른 것은 일회성이거나 다른 것으로 미루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모두에 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장과 25장 전체에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두 질문에 언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이 모든 일이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된 해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NT Wright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24장 전체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29절과 32절에 이르기를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징조가 사람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단순히 묘사하는 일종의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을 올라다 볼 수 있는 구름을 타고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NT Wright와 다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24장 전체가 재림, 즉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한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의 언어조차도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이 전체 섹션을 미래로 참조하는 것입니다.

고전 세대주의의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관점은 종종 이러한 관점을 취합니다. 이 장 전체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 파괴될 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미래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1세기라고 말하는 AD 70년의 견해와는 정반대입니다.

미래관은 아니오, 전체 장(章)이 미래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세 번째 접근 방식은 장 전체에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24장 4절부터 22절까지는 아마도 1세기를 특징짓는 사건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를 특징짓게 될 것입니다.

전쟁,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의 특별하고 끔찍한 사건, 즉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24장 4절과 22장은 이미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사도행전을 읽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는 것뿐입니다. 기록을 검색하여 해당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구체적이고 끔찍한 사건은 서기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 역사 기간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100년, 2,000년, 5,000년 동안 지속될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교회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의 처음 22절은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발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 때에 징조가 일어나리라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

그러면 땅의 모든 민족이 애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그분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다면 그 구절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부분인 제자들의 질문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끝에 당신이 오시는 징조는 언제입니까 ?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기에 역사의 마지막에 역사를 끝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일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시 말하지만 AD 70년의 견해는 매우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쪽이든 이것을 예수의 실패한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맥락에서 4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일어날 사건들, 즉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중에 하나의 특별하고 끔찍한 사건이 있을 것인데, 바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제자들의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마침내 알려줍니다. 이제, 이 말들 중 일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24장 34절입니다.

자, 어디 보자, 미안해요, 34절.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세대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열쇠는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죽기 전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대는 유대 민족이나 장차 환란기에 언젠가 살아날 그 누구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외에는 이 세대를 데려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보기 전에는 가져가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것들은 다 뭐죠? 글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이전 구절을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태양이 어두워 질 것입니다.

달은 빛을 발하지 않을 것이다. 인자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땅은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구름과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는 큰 나팔을 불며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내 생각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께서는 내가 말하는 이 세대인 너희에게 내가 재림하는 것을 볼 때까지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예수님은 착각하셨고, 예수님도 틀렸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우리가 논의해온 AD 70년 견해입니다.

그들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29절부터 31절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큰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심과 천사들이 집합하고 택하신 자들과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어두워지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느니라.

그러나 다시 그들은 그것을 재림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이 모든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였음이니라. 29장과 31장에 있는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실제로 그곳에 서 있는 자들의 멸망을 언급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시대인들은 그 끔찍한 사건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29절부터 31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예수가 틀렸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34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33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구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는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29절부터 31절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33절은 “그가 가까이 계신 줄 알라” 라는 말로 끝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일

, 즉 그리스도의 오심을 볼 때 그분이 문 앞에 오신 줄을 알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돼요. 33절의 이 모든 것이 재림을 가리키는 29절부터 31절까지를 다시 언급한다면, 재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므로 33장과 34장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아마도 4절부터 22절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전쟁, 난리의 소문, 지진, 기근은 교회 역사의 전체 시대를 특징짓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끔찍한 사건을 포함하여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기근과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단순히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는 줄을 알라는 것이다. 그가 바로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즉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는 단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후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반드시 그래야만 하거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단순한 예언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그들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지진과 기근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분이 일어나셔야 하는지, 그분이 돌아오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측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나머지 부분이 모두 하나의 주제, 즉 재림에 비추어 경계하거나 책임감 있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련의 비유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종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다시 오실지 예측하기 위해 그들에게 일련의 표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제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삶과 현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을 심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지 예측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계시고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게 생활하십시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종종 이러한 표적을 생각한다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 여러분이 알게 될 몇 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4장부터 22장까지에서 예수님은 적어도 두세 번 난리와 난리와 기근과 지진의 소문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표시는 끝이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실 그 말씀이 있기 전인 24장에서 그 말씀이 있기 전, 그 날의 환난 직후에 해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 전에 그는 23절부터 이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기 메시아가 계십니다.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즉, 예수님의 요점은 이런 것을 볼 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 기근, 지진, 심지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지라도 놀라거나 속지 마십시오.

끝은 아직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너희가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놓치지 마세요.

그러므로 다시 요약하면, 적어도 34절에서 예수께서는 결코 오지 않은 끝을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그의 추종자들인 여러분, 이 세대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전쟁,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서기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 있는 줄 알라. 예수님이 모퉁이를 돌면 바로 오실 것임을 아십시오. 얼마나 가까우나요, 아니면 얼마나 멀리 있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살펴보고 싶은 다음 진술은 우리가 이미 읽은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 29절.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별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거기에는 인자의 표징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올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날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의 고난이 서기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에서 묘사하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서기 70 년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

하지만 내 생각에는 29절에서 이 모든 일, 즉 그 당시의 고난은 아마도 다시 4절부터 22절까지의 모든 사건, 즉 그 고난의 기간 전체를 다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이 있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기간은 전 기간이 환난의 때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자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긴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대신, 추종자들에게 경계심과 책임감 있는 삶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29절에서 당시의 고난이 서기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그 사건과 교회 역사 전체의 특징을 이루는 다른 모든 사건이라면, 다시 한 번 예수님은 종말을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직후 1세기에 일어날 종말을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으며

예수는 착각했습니다. 그 대신, 예수께서는 4절부터 22절에서 서기 70 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포함하여 환난의 전체 기간이 끝날 것을 예언하고 계시지만, 또한 70년에 이르는 역사의 전체 기간을 특징짓는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도 포함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예측하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을 뿐이며, 그것은 독자와 제자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어느 것도 그분이 틀렸다고, 결코 실현되지 않은 예측을 하셨고, 따라서 그분이 틀렸다고 결론을 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치고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두 가지 잘 알려진 비유를 살펴보며 이 섹션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두 가지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의 맨 끝 비유와 마태복음 25장 끝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24장이 끝나고 25장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다음으로 돌아갑니다.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주된 관심을 보여 주십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종말론적 예언이다.

그는 사건의 진행 과정, 언제 돌아올지, 표지판을 읽는 방법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독자들에게 깨어 있고, 경계하고, 책임감 있게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고, 책임감 있게 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비유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의 빛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의 맨 끝 부분에 있습니다.

깨어 있는 종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약간의 배경 지식을 제공하자면, 여기서 언급된 내용은 아마도 부유한 지주, 즉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하인을 맡기며 종종 여행을 하고 사업상 떠나 자신의 재산을 집 안에 남겨 두는 부유한 청지기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그의 청지기나 종들의 보살핌. 이제 그분은 자신이 맡은 일을 그들이 잘 지켰는지 알아보려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주인이 와서 자기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종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그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주인이 늦어진다 하여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यो 알다. 그가 그를 쳐서 갈기갈기 찢고 그 자리를 위선자들에게 맡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일종의 영원한 형벌의 이미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청지기의 문제입니다. 주인은 그의 청지기가 멀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청지기는 나의 주인이 오랫동안 떠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

그는 돈을 낭비하고, 해서는 안 될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비유의 문제는 50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오리라는데, 이는 34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영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 이 비유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인이 청지기의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지체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에게는 온갖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것을 다음 비유인 25장에 나오는 열 소녀의 비유와 대조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10명의 처녀의 비유입니다. 문맥은 1세기의 결혼식이고,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그들은 그를 호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수가 10명입니다.

다섯 명은 어리석고 처녀 다섯 명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 다섯 명은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명하고 어리석게 만든 것은 그들 중 다섯 명입니다. 미련한 다섯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 이상 버틸 만큼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사람은 등불을 오랫동안 켜두기 위해 다른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에 보면 한밤중에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도 사자가 신랑을 찾으러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나갔고, 문제는 신랑이 늦어지는 거였어요.

신랑은 생각을 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곧 돌아오지 않았고, 지체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명은 지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명한 다섯 명은 지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비유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첫 번째 비유는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일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주인은 더 빨리 돌아왔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문제가 반대입니다.

그들은 신랑이 곧 올 줄 알았으나 신랑이 생각보다 오래 지체하더라. 그래서 당신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인 마태복음 24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실 수 있으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5장은 바로 돌아서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심지어 그들의 생애 동안 다시 오실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시간 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당장 오실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지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순간 다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 하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인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지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 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나머지 부분, 25장 끝 부분에 나오는 잘 알려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포함한 나머지 비유들은 모두 우리에게 곧 그리스도의 재림에 비추어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연 가능성.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비유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종말을 예언하셨고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그것을 예수님이 아닌 후기 교회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지 않는 한, 지연 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모든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지체할 여지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곧 다시 오실 수 있으며, 제자들이 24장에서 그 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수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지연을 허용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 동안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지만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경계해야 하며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예수께서 말씀하신 24장과 25장의 어떤 내용도 예수께서 종말을 예언하셨고 따라서 틀렸다고 결론을 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이것은 Dr. David Matthewson이 '그분은 어디로 오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세션 2, 예수의 가르침에서 파루시아의 지연.